Reader's Club

Stage 4. The Wedding – More Stories A

Storytelling by Extended Stories?

더 길고 자세한 스토리 버전으로, 좀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 시켜 줍니다.

페이지 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Introduction

In this picture you can see Wilf and Wilma with their Auntie Jo. Don't Wilf and Wilma look smart? Do you Know why? They are just about to go a wedding. You can see that it is Jo who is getting married. She is the bride. Wilma is going to be a bridesmaid at Jo's wedding. Wilf is just going to the wedding to enjoy himself. He didn't want to go to the wedding when he first heard about it because he didn't want to be a pageboy.

이 사진에서 Wilf와 Wilma와 Jo 이모를 볼 수 있지요. Wilf와 Wilma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런지 알고 있나요? 막 결혼식에 가려고 하고 있지요. 결혼하는 것은 Jo 이모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Jo 이모는 신부입니다. Wilma는 Jo 이모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습니다. Wilf는 그냥 좋아서 결혼식에 가는 것입니다. Wilf는 들러리가 되기 싫어서 처음에 결혼식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ave you ever been to a wedding? Tell me about it.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Page 1

Jo was Mum's sister. She had some exciting news for everyone. She was getting married. Her fiancee, Jake, had given her a beatiful engagement ring. 'Congratulations!' said Mum. 'I love weddings, and this one will be really specail, because it's my sister's wedding.' 'I would like Wilma to be my bridesmaid,' said Jo. 'Oh yes, I'd love to,' said Wilma, excitedly. 'Do you want Wilf to be a pageboy?' joked Mum. 'What a good idea!' laughed Jo.

Jo는 어머니의 여동생입니다. 모두에게 기대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지요. 바로 결혼을 한다는 소

식이었습니다. 약혼자인 Jake가 아름다운 약혼 반지를 주었습니다. "축하한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결혼식이 좋은데 이번 결혼식은 내 동생 결혼식이라서 특별할 꺼야."라고 말했습니다. "Wilma가 내 들러리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Jo 이모는 말했지요. "좋아요, 저 하고 싶어요."하고 Wilma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Wilf도 들러리가 되었으면 좋겠니?"라고 어머니께서 농담하셨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리고 Jo 이모가 웃으셨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is a pageboy?
들러리가 무엇이지요?

Did Jo really want Wilf to be her pageboy?
Jo 이모는 정말로 Wilf가 들러리가 되기를 바랬나요?

What is Jo's ring called?
Jo 이모의 반지는 어떤 반지인가요?

Wilma was happy. She loved the idea of Jo's wedding. Well, she wanted to be a bridesmaid. Wilf was unhappy. He hadn't realised that Mum and Jo were only joking and although he loved the idea of Jo's wedding, too, he didn't want to be a pageboy. He wasn't too sure what a pageboy actually did at a wedding, but in his mind, he saw himself as a sort of boy bridesmaid. What would a boy bridesmaid look like, he wondered. Would he have to dress up in a yellow and pink satin suit, with bows and frills on it? The more he thought about being a pageboy, the more unhappy he became.

Wilma는 기뻤습니다. Jo 이모의 결혼식 생각을 하면 너무 좋았습니다. 신부 들러리가 되고 싶었지요. Wilf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Jo 이모가 농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지요. Jo 이모의 결혼식은 좋았지만 들러리가 되기는 싫었어요. Wilf는 들러리가 결혼식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잘 몰랐지만 그냥 신부 들러리와 같다고 생각했지요. 신랑 들러리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노랗고 핑크로 되어 있고 리본과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어야 하나요? 들러리가 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기분이 안 좋아 졌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was Wilf unhappy about?
Wilf는 왜 기분이 안 좋았지요?

What did he imagine he'd have to wear?
Wilf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Do you think he looks good in this pageboy outfit?
Wilf는 신랑 들러리 옷이 잘 어울릴까요?

Page 4/5

As the day of Jo's wedding drew nearer, the grandparents came. They came for the wedding. Of course, but they also came for a long holiday. Wilf and Wilma had never seen These grandparents before because they lived on an island in the Caribbean. Dad had been to meet them at the airport, and when they arrived home, Wilf and Wilma ran to greet them. 'Grandmother!' called Wilma, running to give her a hug. 'Hello!' called the grandparents, 'Here we are at last.' 'What a journey!' they said. 'getting to England was easy. The worst part was driving on the motorway!'

Jo 이모의 결혼식 날이 가까워지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물론 결혼식 때문에 오셨지만 긴 휴가를 하시려고 오셨지요. Wilf와 Wilma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Caribbean의 섬에 사셨기 때문에 두 분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가셨고 집에 도착하셨을 때 Wilf와 Wilma가 인사를 하러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라고 Wilma가 할머니를 안으러 달려가면서 불렀습니다. "안녕 얘들아 우리가 드디어 왔단다."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행이었다! 영국에 오는 것은 쉬웠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Do your grandparents live near you, or do they live a long way away?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근처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멀리 살고 계신가요?

Why hadn't Wilf and Wilma ever seen these grandparents before?
왜 Wilf와 Wilma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도 보지 못했나요?

Page 6/7

For the next few days, Jo's wedding was the only thing that anyone talked about. Wilf didn't mind, except that all the time he kept dreading the moment when Jo and Mum would get round to thinking about his pageboy suit. Jo bought some pretty pink material, and Mum made Wilma's dress. Grandmother helped. Jo had rather a lot of the material over.

Grandmother looked at Jo and winked. 'There's enough there for a pageboy outfit,' she said. Wilf looked at the material. He tried to imagine what he would look like in a suit made out of it. 'Oh no!' he thought.

다음 며칠 동안 모두들 Jo의 결혼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Wilf는 상관이 없었지만 Jo 이모와 엄마가 들러리 옷 생각을 할 때가 올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Jo 이모는 예쁜 핑크색 천을 사오셨고 어머니는 Wilma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Jo 이모에게 꽤 많은 천이 남았습니다. 할머니께서 Jo 이모를 보시고는 윙크를 하셨지요. "신랑 들러리 옷을 만들기에도 충분하구나."라고 말씀하셨지요. Wilf는 천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양복을 만들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안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Describe to me the suit that Wilf thinks he might have to wear?
Wilf가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옷을 설명해 보세요.

How do you know that grandmother and Jo are joking?
할머니와 이모께서 농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Page 8/9

The next thing to think about was the food for the wedding. Grandmother made the cake. It wasn't just one cake. It was three cakes, each one getting smaller. Grandmother put one on top of the other. Then she iced it. 'Why is it called a wedding cake?' asked Biff. 'After all, there are three cakes altogether.' 'I don't know,' said Grandmother. 'It's just what when you put them all together, it's called a cake.' Wilma stood on a chair. She reached up to the top of the cake and put a bride and groom on it. 'It's wonderful,' said Jo.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결혼식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케이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케이크 하나가 아니었지요. 세 개의 케이크였는데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하나씩 쌓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싱 크림을 발랐지요. "왜 결혼식 케이크라고 부르죠?"라고 Wilma가 물었습니다."그냥 케이크 세 개를 쌓아 놓은 것인데." "나도 모르겠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합쳐 놓으면 그냥 결혼식 케이크가 된단다." Wilma는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케이크 위에 신랑과 신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예뻐요."라고 Jo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was Wilma puzzled about?
Wilma는 무엇을 궁금해 했나요?

What do you think Wilf is thinking?
Wilf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Page 10/11

At last Wilma's dress was finished. Biff and Chip came to see it. So did their Mum. Everyone thought that the looked lovely, and Biff and Chip's mum said how clever Wilma's mum was. 'I just love the bridesmaid's elegant footwear!' said Biff in a funny voice, as she looked at Wilma's trainers. Everyone laughed. 'I like wedding', said Chip. 'I don't', said Wilf. He dreaded the moment that Mum would bedin making his pageboy suit.

드디어 Wilma의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Biff와 Chip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주머니도 오셨지요. 모두들 드레스가 예쁘다고 생각했고 Biff와 Chip의 어머니는 Wilma의 어머니께서 현명하시다고 하셨어요. "정말 들러리의 세련된 신발이 마음에 들어!"라고 Biff가 Wilma의 운동화를 보고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요. "나는 결혼식이 좋아."라고 Chip이 말했습니다. "나는 싫어."라고 Wilf가 말했습니다. Wilf는 어머니께서 들러리 옷을 만들기 시작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Do you think Wilma will wear her trainers for the wedding?
Wilma가 결혼식 날에 운동화를 신을까요?

Page 12/13

Then the moment came! jo took Wilf's measurements, and she gave them to Mum. 'We've got to think about your suit now,' said Mum. Wilf was unhappy. He saw himself in some dreadful pageboy suit. What would Biff and Chip say when they saw him dressed up with bows and frills and maybe-yuk!-even a hat! One thing was certain. He didn't want to be a pageboy.

그 순간이 왔습니다! Jo 이모는 Wilf의 옷 치수를 재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제 네 양복을 생각해 보아야겠구나."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Wilf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상한 들러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지요. 리본과 레이스가 달리고 어쩌면 으악! 모자까지 쓴 자기를 보고 Biff와 Chip이 뭐라고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Wilf는 신랑 들러리가 되기 싫었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Talk about the suit that Wilf is thinking about.
Wilf가 생각하고 있는 양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What do the letters and numbers on the horseshoe mean?
편자에 새겨진 숫자와 글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Page 14/15

Mum had been shopping. She had a surprise for Wilf. She, and Grandmother and Jo came home with loads of bags and packages and parcels. 'I haven't enjoyed myself so much for ages,' said Grandmother. Mum handed Wilf a carrier bag. 'What is it?' asked Wilf.

어머니께서 쇼핑을 하셨습니다. Wilf에게 깜짝 선물이 있었지요. 어머니와 Jo 이모와 할머니께서는 집에 많은 상자와 봉지를 들고 오셨지요. "이렇게 즐거웠던 것은 정말 오랜만이구나."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Wilf에게 쇼핑백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지요?"라고 Wilf가 물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the surprise is?
깜짝 선물은 무엇일까요?

Page 16/17

'It's a suit,' said Mum. She pulled a smart blue suit out of the bag and held it up to show Wilf. 'But... but... I thought!' said Wilf. 'You thought I wanted you to be a pageboy. Well you're not a pageboy,' said Jo. Grandmother laughed so much that everyone else began to laugh too. Even Wilf. 'It was a joke,'said Grandmother. 'Now, try the suit on. I can't wait to see you in it. It's your first suit, and I'm going to be so proud og you when I see you looking so smart and grown-up.'

"양복이란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멋있는 파란 양복을 꺼내서 Wilf에게 보여주려고 들고 계셨습니다. "그..그런데 저는!"이라고 Wilf는 말했지요. "내가 Wilf가 들러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지? 너는 신랑 들러리가 아니야."라고 Jo 이모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너무 웃으셔서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Wilf도 웃었지요. "그냥 장난이었단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양복을 입어보렴. 빨리 입은 모습을 보고 싶구나. 첫 번째 양복이니깐 멋있고 어른 같은 모습을 보면 자랑스러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was Wilf thinking?
Wilf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Why is Grandmother laughing so much?
할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웃고 계시지요?

Page 18/19

At last it was the day of the wedding. Jo looked really pretty, and so did Wilma. As for Wilf, he looked so smart in his new suit that Biff, Chip and Kipper hardly recognised him. Dad made a video with his new camcorder, and Biff took a photograph. 'It's almost time to go,' said Grandmother. 'I'm feeling quite nervous,' said Wilma, and I'm not the one getting married.'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Jo 이모는 매우 예뻤고 Wilma도 예뻤습니다. 그리고 Wilf가 새 양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근사해서 Biff, Chip, Kipper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비디오 카메라로 비디오를 찍었고 Biff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가야할 시간이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긴장이 되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라고 Wilma는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In what other stories does Dad use his camcorder?
아버지는 다른 어떤 이야기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찍으셨지요?

Find the picture that Dad took of the wedding in another story book.
다른 이야기책에서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을 찾아보세요.

Page 20/21

There are all the people who came to the wedding. There are Grandparents, uncles and aunts, cousin and friends. Here they are, all lining up to have a big photograph taken. Wilf liked his suit. He felt really proud. He was glad he wasn't pageboy and he didn't mind about the joke that Mum and Jo had played on him. He felt rather pleased that they had played it on him. So he was happy. In fact, everyone was happy. But then, weddings are happy

occasions!

이 사람들이 모두 결혼식에 온 사람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친척, 친구들입니다. 큰 사진을 찍으려고 다들 모여 줄을 섰습니다. Wilf는 양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웠지요. 들러리가 아니어서 기뻤고 어머니와 이모가 한 장난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난을 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Wilf는 기뻤습니다. 사실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식은 행복한 행사이지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are cousins?
사촌들은 누구이지요?

Point to Wilf and Wilma's cousins.
Wilf와 Wilma의 사촌들을 찾아보세요.

Page 22/23

Later on there was a big party. Everyone danced to the disco music. even the grandparents. It was a wonderful party. 'I like weddings,' said Wilf. He had taken off his smart new jaket and hung it carefully over the back of a chair. He and his cousins had invented a new sort of dance, and after a while everyone else began to do it.

나중에 큰 파티가 있었습니다. 모두 디스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정말 좋은 파티였어요. "나는 결혼식이 좋아."라고 Wilf가 말했습니다. Wilf는 양복 재킷을 벗고 의자 뒤에 조심스럽게 걸어 놓았습니다. Wilf와 사촌들은 새로운 춤을 만들었고 곧 모두가 따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ave you ever been to a disco? Tell me about it.
디스코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Page 24

The party went on quite late. Wilf and Wilma had enjoyed themselves so much, they were quite exhausted. 'I think wedding are brilliant,' said Wilf. Everyone is good fun. There is lots of lovely food. The grown-ups are having such a good time they don't tell you off.' 'It's been

wonderful,' said Wilma. 'Will you get married?' asked Wilf. Wilma thought about it. She imagined that one day she would, but she had no idea who she'd marry. 'I don't know,' said Wilma. 'I wonder if anyone will ask me,' said Wilf. 'It's hard to say,'said Wilma.

파티는 늦게까지 했어요. Wilf와 Wilma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매우 힘들었답니다. "결혼식은 정말 좋은 것 같아."라고 Wilf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해. 맛있는 음식도 많지 어른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고 혼내지 않아." "정말 재미있었다."라고 Wilma가 말했지요. "너는 결혼할거니?"라고 Wilf가 물었습니다. Wilma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와 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겠어.."라고 Wilma가 말했지요. "누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할까."라고 Wilf가 말했지요. "글세 잘 모르겠다."라고 Wilma가 말했습니다.